

2014년 6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4.6.26(목) 16:00~17:15

■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사건사고 보도시 개선 및 유의사항

- 우리나라 방송 보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중계방송식 보도를 한다는 것임.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보도의 경우, 카메라를 바닷가에 고정한 채 몇 시간이고 같은 장면을 보여줬는데 6월 11일 금수원 진입 사건 보도에서도 유사한 행태를 보여주었음. 카메라를 고정한 채 경찰의 금수원 진입 장면을 중계방송하듯이 보여주는 중계방송식의 보도 행태는 자제했으면 좋겠음(최현철 위원)
- 6월 22일 동부전선 22사단에서 발생한 GOP 총기난사 사건 보도는 과거 군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를 정리한 내용에서 과거 22사단에서 총기 사고와 북한병사 노크 귀순사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 되지만, 특별하게 관계가 없는 해병대라든지 총기 사고도 보도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과대 포장한 보도였다고 생각함(최현철 위원)
- 6월 2일 뉴스1번지 2부에서 유병언 및 측근 체포 작전 진행과 관련한 소식을 패널들의 토론으로 진행하는 중 '유병언 측근 양희정씨 체포 후 자백하여 석방'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패널로 참석한 정미경 변호사(전 검사)는 "검경 내부 조력자 존재 가능성 있다. 수사팀 내에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흘리는 내부세력이 있을 것이다. 구원파내에 유병언 회장을 돕는 도피 조력자가 수많은 '엄마'를 포함하여 수백명은 있을 것" 등의 이야기를 함. 과거 검사 경력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전문적이지 않고 떠돌아 다니는 '카더라 통신'에 의존한 것으로 비춰지는 등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기에 다소 부적절해 보였음(성낙용 위원)
- 6월 11일 뉴스워치에서는 뉴스 진행에서 특정 내용에 지나친 비중으로 보도 : 검찰이 금수원에 재진입한 내용을 토대로 '검경, 금수원 다시 진입하여 수색. 강경모드 선회한 이유? , 금수원 어떤 곳인가?, 유병언 망명 가능성, 밀항가능성 및 대책, 검경의 유병언 일가 체포 지연에 따른 문책설- 신창원 악몽, 유병언 재산 관련, 유병언 체포 지연에 따른 세월호 피해 보상 표류' 등에 대한 유병언 일가와 측근의 검거관련 내용을 15분 이상 진행함. 이후 진행한 뉴스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여 진행함으로서 뉴스의 신선함이 떨어졌음(성낙용 위원)
- 6월 12일 맹찬형의 시사터치에서 5명의 패널과 함께 유병언 일가의 검거와 관련한 내용을 30분 동안 진행하였고 문창극 총리 후보의 발언 내용을 약 15분정

도까지 진행함. 유병언 일가 관련 내용은 금수원 수색, 유병언 장녀 재판 관련, 밀항설, 조직폭력배 비호설,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내용 등 유병언 일가의 체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관했음. 유병언 회장에게 집중하게 된 근본적인 사건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제는 향후 대책에 대한 보도, 안전대책과 관련한 대응 점검, 유가족 피해자들의 현재 상황과 대책, 진도의 수색 상황, 대통령의 담화 이후 약속 이행 점검'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임(성낙용 위원)

- 6월 21일 군 총기난사 사건 속보 보도시 빨간 띠자막으로 처리한 것은 적절함. 하지만 광고가 길어져 타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늦게 뉴스 아이টে็ม으로 다루게 됨. 보도하는 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단순한 강원도 지도 화면을 배경으로 동일한 내용이 약 8차례 이상 반복됨. 자료화면 제공 등에 순발력 있는 대처가 필요함(양승찬 위원)
- 뉴스워치. 유병언 동생 유병일 씨 구속영장신청 보도 관련,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6. 25. 뉴스워치가 유병언 씨 동생 유병일 씨 체포되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손에 수갑이 채워진 모습이 그대로 방송을 탔는데 비록 유병일 씨가 범죄혐의로 체포되어 있더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가 추정되고, 피의자의 인권 또한 보호되어야 함. 그런 점에서 유병일 씨가 수갑을 찬 모습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은 범죄피의자 보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러한 점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최진영 위원)
- 우리사회가 최근 세월호 참사 이번에 고성총기난사, 얼마전에 금융권의 개인정보유출, 해외에서는 전쟁등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속에서 재난보도를 함에 있어 원칙과 세부적인 지침이 어떤지 하는 매뉴얼을 다듬어서 적어도 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대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이 있었으면 함(강대인 위원장)

▲ 추측성 보도 지양하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야 함. 23일 이번 총기난사 사고가 구타나 왕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도하는 것은, 아직 사건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나온 추측 보도로서 자제했으면 좋겠음(최현철 위원)
- 또한 유병언 회장의 행방에 대해서도 금수원 내 기거설과 해외 밀항설 등 추측성 내용을 패널들의 수다 형식으로 장황하게 진행한 것도 무의미해 보였음. 하지만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쯤인'은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하고 시사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성낙용 위원)
- 뉴스 내용이 현재 이슈가 되는 내용에 무게를 두는 것은 당연하나 정확한 사실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추측성 내용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다소 식상하게 느껴짐(성낙용 위원)
- 6월 24일자 수박이나 참외는 심장질환자에게는 위험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얼

마나 오랫동안 먹으면 위험한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려주지 않고 의사의 인터뷰에서는 단지 수박 참외 위험하다는 내용만 얘기하다 보니 수박참외 농가가 피해를 입을 우려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함(이용우 위원)

- 6월 23일자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내용에서 정부가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지자체 단위의 요금인상이었음. 지자체 단위의 요금인상도 정부가 결정을 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함(이용우 위원)
- 6월19일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 오른다는 내용은 실제로는 건강 보험료는 평균 6.85% 올라 2010년 이후 최저수준이어서 건강 보험료가 적게 오른다는 내용인데 같은 내용을 어둡게 보도한 것이 아닌지 주의해야함(이용우 위원)
- 6월 17일 6월말까지 스케일링 받아야만 의료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작년 7월 1일부터 6월까지 작년 의료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즉 올해 7월 1일부터는 올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임(이용우 위원)
- 6월 21일 국방 안보포럼 연구위원 인터뷰의 경우 너무나 많은 가정을 한 추측성 질문과 답변으로 사실 전달이 없는 가운데서 적절하지 않았음(양승찬 위원)
-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함. 금번 군인 관련 사건시 '체포', '생포' 등 정보전달 함에 있어 다소 혼란스러웠는데. 되도록 추측 및 예상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가 진행된 후 보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정확한 조사 후 객관적인 사실 보도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연화 부위원장)

▲ 화면구성 및 부적합 표현, 오타 등 개선필요

- 실시간 주요 뉴스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정치와 경제, 사회, 국제 등 분야별로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뉴스 제목을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자주 있음. 뉴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기 바람(최현철 위원)
- 이번 6.4 지방선거방송에서 자주 등장한 개념 중의 하나가 진보와 보수임. 특히 타사는 후보자의 진보성과 보수성을 각 5점으로 분류하여 특정 후보가 진보 3점, 또는 보수 2점식으로 보도하고 있었는데 뉴스Y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거방송이 진보와 보수 잣대로 후보자의 이념을 평가하고 있음.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의미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은 채 개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는 보수라고 표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나 통진당 후보는 진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 구분이 필요한지, 맞는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음(최현철 위원)
- 6월 5일 뉴스Y 수화방송은 크로마키를 활용하여 수화통역사만(블루화면 없음) 화면 우측하단에 배치하여 방송내용을 놓아인 들에게 전달하고 있음. 이는 새로운 시도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방송화면과 수화통역사

- 를 구분하는 선(에지선)이 없으므로 해서 방송화면과 수화통역사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때론 수화통역사를 방송내용 중의 한 인물로 인지할 수 있는 등 방송시 청에 오히려 방해가 됨(성낙용 위원)
- 스크롤 자막 표기 시 비슷한 내용끼리는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음. 동일한 내용을 묶어서 진행한 내용을 자막 처리는 전혀 다른 기사처럼 처리함(성낙용 위원)
 - 오타도 발견이 되었음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립서울현청원으로 표기했으며 스크롤 자막에서 파리바게뜨 '10만원 이상 주문시 배달' 이라고 나오는데 뉴스로서 가치가 있다기 보다 광고성 기사로 비취질 수도 있음(성낙용 위원)
 - 6월 24일 공공기관 CEO들 낙하산 인사 등 면죄부 내용에서 낙하산이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이라는 명분으로 구제해주었다고 들리는데 낙하산과 6개월 미만자는 구분해야 하는데 섞어 놓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이용우 위원)
 - 6월 23일 원유 가격이 리터당 25원을 올렸고 유가공업체가 반발한다고 보도했는데 타사에서 같은 내용은 낙농가와 유가공업체간 협상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정부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협상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라고 했음. 낙농가와 유가공업체간 예민한 문제인데 편향적인 듯 한 느낌으로 보도하는 것은 지양해야함(이용우 위원)
 - 뉴스속보를 제공하는 하단 띠 자막은 기사 성격에 따라 색을 달리 하면 좋을 것 같음. 사건 사고, 정말 중요한 사회적 이슈 등은 빨간색으로 적절해 보이나 스포츠 영역의 경우는 다른 색으로 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함. 6월 7일 '류현진 승리투수 요건 갖추고 교체', '투수무덤서 호투'는 정말 중요한 뉴스 속보인지 판단이 애매함. 사건 사고가 아닐 경우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조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음(양승찬 위원)
 - 뉴스속보 하단 자막에 오타가 발견됨 6월 6일 오후뉴스에서 ' 미셀위, 박희영 LPGA 메뉴라이프클래식 1R 공동 공동 선두', '59회 현충일 기념식 행사 국립현충원 등 전국에서 거행'으로 나왔으며 6월 15일 아침 '월드컵 결과 콜롬비아, 그리스 3:0임에도 그리스, 콜롬비아 3:0'으로 오표기함(이용진 위원)
 - 출발640 뉴스, 앵커용 스크립트 북이 커서 시선이 분산됨 진행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스크립트 북이 대학노트 사이즈보다도 크다보니, 시청자입장에서 시선이 분산되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어 보임. 뉴스를 보면서 진행자의 얼굴이나 말에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640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는 대형 스크립트 북으로 자꾸 눈이 가게 되고 해당 방송코너 자체를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뉴스 자체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임. 다른 방송의 경우 진행자들이 A4용지 반장 크기의 메모지를 들고 하는데 비해서, 이렇게 큰 사이즈로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함(최진영 위원)
 - 자막 관련 용어 사용 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쉬운 용어 사용과 올바른 용어

사용이 필요함. 6월 25일 오후 뉴스에서 자막에 6.25를 '한국전쟁'으로 시대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6월 26일 오전 뉴스에서 성폭행 관련 자막 중 '인면수심'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했는데, 대체로 사자성어에 취약한 소비층도 고려하여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김연화 부위원장)

▲ 앵커, 출연자 및 리포트 관련 의견

- 날씨 보도나 기자의 리포트가 현장에서 진행될 경우 기상캐스터와 기자가 멘트를 하는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전환할 때 주의가 필요함. 되도록 기상캐스터와 기자가 카메라를 보고 암기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중에 화면을 조금 먼저 전환시켜주면 이들이 메모한 내용을 다시 보려 고개를 숙이는 어색한 장면을 피할 수 있음.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전문성이 떨어지는 듯한 당황해하는 모습인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이런 장면을 피할 수 있을 것임(양승찬 위원)
- 언론계 경력이 오래된 앵커가 중요 사건 발생시 외부와의 인터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경력 앵커의 육성 또는 영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양승찬 위원)
- 6월 3일 저녁 9시 뉴스리뷰 '오늘 생각'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시민의견을 다룬 것 좋음. 17일에는 연명치료에 대한 시민의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인터뷰를 진행하는 장소를 조금 더 확대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소개하면 더 좋을 것 같음.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함(양승찬 위원)
- 6월 23일 신율의 정정당당에서 문창극과 청와대의 선택 편에서 토론에 참여한 패널이 격양된 모습으로 발언을 하거나 반말조의 말투로 이야기 하는 등 시청자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모습이 자주 보였음. 토론의 기본은 상대의 존중에 있는데 발언시간에 끼어들어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모습은 잘못된 태도라고 보임. 해당 프로그램은 개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자유토론의 권리가 있다고 해도 시청자가 납득할 만한 기본적 수준과 예의를 벗어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이헌규 위원)
- 6월 15일 신율의 정정당당에서는 패널 중에는 토론 주제의 핵심인 문창극 동영상조차 보지 않고 나와 아무렇지 않게 못 봐서 잘 모르겠다고 발언하고 심지어 토론 도중 테이블을 두드리는 등 부적절한 점이 너무 많았음. 토론자 선정에 신중함이 필요함(이헌규 위원)
- 6월 11일 뉴스1번지 2부에서 박찬종 변호사가 출연하여 7월 재보궐 선거에서의 '동작을, 여야 거물급 정치인 출마설 견해는?'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면서 반말을 섞으면서 얘기하는 등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거북함을 느낄 수 있었음(성낙용 위원)

▲ 긍정적인 평가

- 6월 6일 17시 뉴스Y에서 김동혁 기상전문기자가 연휴와 올 여름 날씨예상 정보와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점, 올 여름 더위 예상 정도, 태풍의 가능성, 엘니뇨의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줌으로서 날씨에 민감한 시기에 시의적절한 좋은 정보가 되었음(성낙용 위원)
- 6월 18일 뉴스Y 12에서 글로벌 뉴스에서의 2014 월드컵소식을 전하면서 각국 정상들의 월드컵 응원, 북한의 월드컵 중계방송, 북한 축구 용어 소개, 중국의 월드컵 열풍, 베트남 짝퐁 월드컵 트로피 불티 등의 내용으로 보도하였는데 지상파 방송에서 보지 못한 월드컵과 관련한 깨알 같은 주변 소식들을 특파원들의 보도를 통해서 전달한 것은 신선했음(성낙용 위원)
- 지방선거 특보 중 스튜디오 바닥에 그래픽이 등장하게 하는 시도는 신선했음. 류미정 앵커가 다른 앵커들과 게스트들 앞에서 좌우로 이동하면서 설명한 것은 새로웠으나 뒷배경의 앵커와 패널의 시선처리 등이 어색했음. 새로운 포맷에 대한 고민은 긍정적이거나 일반적인 방송제작 방식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주의를 필요로 함(양승찬 위원)
- 6월 18일 뉴스현장 13에서 지난 16일부터 6일 동안 이루어진 박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외교적 행보로 자원외교의 진전, 미래 경제영토의 확장, 한반도의 평화기반 구축이라는 상당히 거시적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뉴스였음. 이를 민간 차원의 지원(약품, 의료 등)이 미치는 영향, 즉 민간외교의 중요성에 주목했던 '뉴스현장 13 - 민간외교를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편은 뉴스의 단편적 요소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을 넓혀 사건과 현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생각을 시청자에게 줄 수 있었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음(이헌규 위원)
- 6월 20일 뉴스Y 10에서 비즈톡톡 - 상생의 길! 도시통합이 경쟁력이다' 지방도시인 청주시가 행정도시 자율형 통합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 다양한 지역장점 소개와 이같은 행정통합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청자가 알기 쉽게 전달하였고 언론에서 다소 외면되는 지역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한 것이 돋보임. 또한 청주시뿐만 아니라 창원, 여수, 마산 등 최근 각 지역 도시들이 전략적 통합, 국제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부분을 잘 보여주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수도권과의 보도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판단됨.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 소식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시간이 자주 편성되길 바람(이헌규 위원)
- 6월 4일 뉴스와이 지방선거 관련 뉴스에 수화방송을 편성하여 보도한 것은 아주 바람직함.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에 확대되길 바람(이헌규 위원)
- 6월 4일, 5일 수화방송을 함께 진행하는게 참신하고, 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 같아 무척 감명 깊었음(이용진 위원)

- 유용화의 인사이드 '같지만 다른 패배'를 통해 고승덕 후보와 김부겸 후보를 분석하는 등 타 방송과의 차별성이 있어서 좋게 보여짐(이용진 위원)
- 인터넷 시청자를 위한 신속한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함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뉴스Y를 시청하는 분들을 위한 개선노력에 박수를 보냄. 저도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뉴스Y를 시청하곤 하는데 얼마 전까지도 크롬으로 뉴스Y방송을 시청할 때면, 악성코드 주의창이 뜨면서 일부 내용을 차단하곤 했었지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기술적으로 시정해 주신 것 같음. 요즘은 익스플로러 이외에도 Firefox나 구글 크롬 등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크롬에 문제를 비교적 신속하게 개선한 것처럼,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시청자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음(최진영 위원)

▲ 기타 의견

- 뉴스소스를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음. 출입처제도에서 주는 효율성과 편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출입처에서 발굴하는 뉴스가 아닌 발로 뛰는 뉴스를 할 수 있는 TF를 운영한다던지 지방뉴스에서 제외되는 약 90%안에서 관점을 바꿔 뉴스꺼리를 찾는다면 해서 뉴스소스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으면 함(강대인 위원장)
- 뉴스와이 홈페이지 '다시보기'에 올라오는 기사와 관련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명을 기재하였으면 함. 아울러 일시 표기도 실제 방영된 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이현규 위원)
- 6월 7일 연합뉴스에서 '한국, 2014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황금사자상 수상' 보도를 가장 먼저 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Y는 다음날에야 속보로 처리됨. 백남준(독일관) 이후 특히 한국관에서 첫 쾌거이고, 문화예술계에서는 최고의 경사임에도 소홀히 다뤄짐(이용진 위원)
- 페이스북 뉴스Y에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뉴스기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함. 바쁜 시간 중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뉴스Y의 비디오클립을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뉴스가 올라온다는 느낌이 들지만 수많은 뉴스들 중에 어떠한 기준으로 페이스북 등 SNS 사이트에 올리는 뉴스를 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속보 내용도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하는 바람(최진영 위원)
- 6월16일 저탄소차 협력금은 CO2배출을 많이 한 차에게는 부담금 주고 그돈으로 적게배출하는 차에게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인데 현재 국내 차업계에서는 반대중이고 환경부와 수입차업계는 찬성임. 문제는 환경만 놓고 볼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으로 얽여 있으므로 어느 일방만 이야기 하면 안되고 환경부 일방적인 내용였음. 저탄소차 협력금 채택하고 있는나라는 프랑스 뿐이어서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하겠다는 것이며, 전세계

CO2 배출량 1.7%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못미침, 국내에 약 1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데 환경부와 산업부의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 보도해야 하는데 환경부의 입장만을 다룰것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모두 다뤄야함(이용우 위원)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 전반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획보도나 신속보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보도되는 문화예술분야 내용도 대부분이 방송연예에 관한 내용임. 간간히 신간이나 베스트셀러 등 출판에 대한 보도가 있지만 순수예술분야에 대한 편성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참신한 문화 예술분야 코너를 편성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갔으면 함(이용진 위원)
 - 월드컵 하이라이트 미편성의 아쉬움. 비록 영상을 제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도 월드컵 기간 중 국민들이 갖는 관심에 비해 방송이 제한적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상파 방송에만 관심을 갖게되는 악순환이 아쉽게 느껴짐(이용진 위원)
- . (끝)